

# 교환학생 보고서

|       |         |     |          |       |
|-------|---------|-----|----------|-------|
| 이름    | 한글      | 김수영 | 소속(학부/과) | 화학공학과 |
| 파견 학기 | 4학년 1학기 |     | 파견 국가    | 독일    |
| 파견 대학 | 예나공과대학교 |     |          |       |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신입생일 때부터 교환학생을 해본 주변 사람들이 다들 추천을 해서 관심이 있었으나 생각만 하던 중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준비 서류는 독일 예나 대학교 측 교류 도우미 선생님께서 작성해달라는 서류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1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왔기 때문에 기숙사가 크게 경쟁률이 높지 않았지만 만약 2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독일에서는 2학기가 1학기 이므로 경쟁률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천천히 가격대를 지켜보다가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은 입학전에 미리 서류로 제출하는데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학 후 2주까지 수강정정기간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비자는 독일가서 신청해도 되지만 너무 독일 멘토 학생을 믿고 기다리지 말고 독일 가면 최대한 빨리 해놓는 편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독일에 가게 되면 거주지 등록, 은행, 보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예나 대학교에서 지정해주는 멘토 학생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것들이 끝나면 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예나는 대학교로 이루어진 학생 도시입니다. 따라서 작고 조용하지만 학생들이 살기에 아주 편합니다. 도서관도 예나 곳곳에 분포하고 있고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쇼핑이나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원 등 갖출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예나 내에서 이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9,10,11번 버스는 예나대학교와 시내와 기숙사를 연결하는 버스인데 3~5분 간격으로 탈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독일 기후는 흐린 날이 많고 따라서 따뜻한 옷 위주로 챙기시면 됩니다. 너무 옷을 많이 안 챙겨도 예나에서 옷 살 곳도 충분히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강과목을 미리 서류를 통해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것은 절차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학 전 교환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줍니다. 또한 개학 후 2~3주 가량 수강

정정 기간이므로 수업을 들어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업을 수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학과정을 예나공과대학교가 아닌 예나대학교에서 수강하고 싶다면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예나대학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것도 수강정정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은 보통 종강 후에 시험기간에 과목별로 한 번 정도 치게 되는데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신 것 준비하시면 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 비는 같이 집을 공유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저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5명이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집에 살았는데 보증금 300유로에 월세 210유로에 인터넷비 10유로를 냈습니다. 5인용이라서 주방과 거실은 넓고 화장실은 2개 샤워실도 1개가 있었고, 당연히 1인실이기 때문에 5명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외식물가는 10유로가 넘기 때문에 주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거나 학식을 이용했습니다. 학식은 맨자에서 먹을 수 있는데 학생증을 보여주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한달에 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들을 위한 담당 선생님이 지정이 되고 우리 학교 2명 당 한 명의 외국인 멘토 학생이 배정이 됩니다. 그 학생은 은행이나 보험, 비자 등 독일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도와주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불편해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학 약 1주일 전에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이 때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신청자에 한해서 견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것을 신청해서 벤츠 공장과 동물원을 갔다 왔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저는 요가와 바디핏이라는 운동을 신청했습니다. 유의할 점은 독일어로 진행된다는 점이고 만약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운동동아리와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운동동아리는 운동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헤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삶에 활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아리 말고도 사교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매주 열리니 잘 알아보고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독일이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분에 위치하여 주말이나 공강에 주변 나라들을 여행하기에 편리합니다. 꼭 국제학생증을 발급하여서 다른 나라를 플릭스버스를 통해 가게 된다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릭스버스는 저렴하지만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기차를 이용한다면 여러 명이 함께 구입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여행을 최대한 많이 가보는 것을 추천하고 음식은 마트에서 사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렴하고 그 문화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독일에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공부하고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학생할 중에 가장 뜻 깊고 후회하지 않을 경험인 것 같습니다.